



글로벌 사우스 주요 이슈와 협력 방안

글로벌 사우스 주요 이슈와 협력방안



목 차

제1장 글로벌 사우스 논의와 최근 동향	7
1. 국제질서 재편의 게임 체인저,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7
2. BRICS+국가들이 맹주 국가로 국제사회 논의 주도	9
제2장 글로벌 사우스 주요 이슈 및 협력 전략	13
1. 나홀로 성장세, 인구 대국의 소비시장	13
2. 기후변화 직격타를 맞은 신흥국의 인프라 구축 노력	18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식량안보 협업	23
4. 新제조업 투자처로 재부상한 신흥국	26
5. 핵심자원·에너지 부국과의 기술협력	29
제3장 결론 : 협력 전략	33

요약

1 글로벌 사우스 논의와 최근 동향

- (다극화 속 非서방권의 부상)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며 기후변화, 지정학적 이슈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취하는 글로벌 사우스에 무게감 가중
 - * 주요 중견국은 실리를 바탕으로 중간지대를 형성하며 양쪽 모두와 선택적 협력추구
- (부상 배경) △핵심자원, △높은 경제성장률, △인구 증가율 등에 따른 시장 잠재력의 3박자를 갖춘 지역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다변화 진출 활발
 - * '29년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 글로벌 사우스(6.3%), 글로벌 노스(3.9%)(IMF)
- (BRICS+) 글로벌 사우스 관련 논의는 실질적으로 BRICS+ 회원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인도,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영향력 확장 및 글로벌 사우스 의제 선도
 - * 4회 연속 신흥국 G20의장국: 인도네시아('22), 인도('23), 브라질('24), 남아공('25)
- (주요국) 중국, 일본, 미국, EU, 브라질, 중동 등 주요국의 협력 확대
 - * 中, G20서 “고품질 일대일로” 포함 글로벌 사우스 지원 8대 행동계획 발표('24.11.18.)

2 주요 이슈와 협력 전략

시장관점 협력국 수요 맞춤형 제품·서비스 지원으로 안정적 진출기반 확보

- (나홀로 성장 중인 소비시장)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높은 인구증가율 및 경제성장률로 인해 확대되는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음.
 - ☞ K뷰티, K푸드 등 프리미엄 소비재를 바탕으로 온라인, 한류 레버리지 진출
- (기후변화의 직격타, SOC인프라 수요 증가) 주요국에서는 △만성적 인프라 부족, △기후변화 직격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수요 급증
 - ☞ 재해·기후대응, 스마트시티 등 솔루션, 전력 및 도로건설 인프라 수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간 및 국제기구 프로젝트 활용
-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협업) 기후플레이션, 라-우사태 영향 직격타 등은 농축 수산업 비중이 높은 신흥국의 성장 및 글로벌 식량 안보에서 높은 영향
 - ☞ 스마트팜(정밀농업 등), 수자원, 농업기술(K라이스벨트), 전력, 물류, 유통

요 약

- 생산관점** 혁신 협력 파트너 : 기술 이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제조업) 각국의 제조업 육성 활발, 첨단 산업 투자유치 및 내재화를 위한 노력
 - ☞ 스마트 제조, 건설기자재, 전력(K그리드), 제조업 R&D 협력 등
- (자원) 에너지 다변화 및 핵심광물 주요 산지로서의 부가가치 창출 노력 경주
 - ☞ 에너지, ESS, 전력(K그리드), 광물개발 기술 공동 연구, 물류 등

3 협력 전략

* 국제사회 주요 이슈와 글로벌 사우스 진출 우리기업 80개사 대상 설문조사 + 학계 및 산업분야 전문가 + 해외 65개 무역관 수요(200여건)를 바탕으로 정리

- (개요) 글로벌 사우스 120여개국은 그 범위가 다소 넓고, 시장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일정 수준의 시장성과 파급력을 갖춘 “우선 협력국”을 중심으로 진출 후 주변 기회 시장으로 확대하는 차별화 전략이 적절
- (설문조사) 우리 진출 기업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들은 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등 기존 시장성이 높고 우리기업 기 진출이 이루어진 국가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추가 진출도 검토 중이라고 응답
 - 단, 국가들의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사우스의 시장성 부상에 따른 글로벌 기업간의 경쟁 심화는 시장 및 프로젝트 진행시 가장 높은 애로사항
 - * 특히, 인프라프로젝트의 경우 중국, 일본 등은 대규모 차관 등 금융을 토대로 인프라 계약을 진행하는 전략 지속,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
 - 경쟁 심화에 따른 위조품 증가, 현지 시장 인증 취득 등도 주요 애로사항
- (협력) “현지의 수요”*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 소비재의 현지화(예: 한류와 현지 문화 융합, 한류 상품의 할랄시장 진출 등)
 - 제조와 기술의 현지화: 제조업의 경우 현지 기술교육 등 현지직원 교육을 통한 협력, 농업 기술의 전파, 제도 구축 지원 등 협력 기반 마련
 - *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제조업, 농업, 광물 분야 생산성 향상에 현지의 수요 多

요 약

- (전략) △현지 유통망 협력(소비재), △제조인프라 현지화 및 현지 협업(제조업), △현지 정부 수요 높은 분야 위주 진출 및 △정부간·국제기구 프로젝트 활용 등

<주요 이슈별 전략, 유망품목과 국가>

분류	이슈	전략	유망 품목	유망 국가
시장	① 소비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콘텐츠 활용 * 문화→韓 제품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확대 中 - K컬처 활용 프리미엄 소비재 시장 공략 	소비재, 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인니,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 브라질, 멕시코 - 이집트, 남아공
	② SOC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시티 등 우리 경쟁우위분야 집중 * 기 진출경험 활용 - 정부간(ODA 등) 프로그램 활용, 민관협력, 국제기구 협력 	건설·교통·물류, 스마트시티, 디지털, 그린네트워크 건설기자재, K-그리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 브라질, 페루 - 사우디, UAE, 오만 등 - 남아공, 케냐, 탄자니아
	③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팜 등 농업 인프라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성 지원 - ODA 사업 연계 - 우리 식량 자원 확보 	스마트팜, 재해경보, 담수화, 농업 기술 R&D, 콜드체인, 농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인니, 베트남, 태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 이집트, 사우디, UAE - 남아공, 에티오피아
생산 거점 (공급망)	④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정부의 수요 반영 * 전략산업 제조업 육성책 - 현지 내수시장 개척 지원 - 현지 수출역량 강화 지원 * EU 등 글로벌 규제 대응 	소부장, 스마트제조, 건설기자재, K-그리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니,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 우즈베크, 카자흐스탄 - 멕시코, 브라질 - 튀르키예, 사우디, UAE - 남아공, 케냐
	⑤ 에너지, 핵심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협력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전략 - 안정적 에너지 협력 기반 마련 	핵심광물·소재, 정·제련, 물류, 연관 기자재·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니, 필리핀, 몽골, 카자흐 -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 UAE, 사우디, 카타르, 오만 - 남아공, DR콩고, 가봉 등

I 글로벌 사우스 논의와 최근 동향

1 국제질서 재편의 게임 체인저,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 기존 질서가 약화하는 가운데 국제 사회에서 무게감이 커지는 글로벌 사우스

- (다극화 시대, 非서방권의 부상) 기존 서방 중심의 세계에서 대변화의 세계로
 - 미중 전략경쟁과 기후변화, 코로나, 러우사태 등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전략적 균형을 취하는 글로벌 사우스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음(국방연구원, 2024)

*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주로 북반구의 저위도나 남반구에 위치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을 총칭하며,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을 일컫는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와 대비되는 개념. 오늘날에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멕시코 등 120개국이 글로벌 사우스로 분류되며 중국을 제외한 개도국의 의미로 쓰임.

* 대부분의 선진국이 북반구에, 개발도상국이 남반구에 집중되어 있는데서 나온 용어로, 1980년에 UN총장에게 제출된 “브란트 보고서”에서 세계를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눈 것이 기초가 됨

-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UN총회 결의안 표결(“22.3”)에서 중국·인도·남아공·세네갈 등 글로벌 사우스 35개국이 기권, 러시아가 구제·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안(“22.11”)에 대해서도 글로벌 사우스 73개국이 기권

* 브라질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플랜 제시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

- (**Swing country**) 미-중을 연결하는 중견국, “어부지리”에서 ‘독자 노선’ 구축으로

* 미-중 러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스윙 국가’이자 ‘펜스 시터(Fence-sitter)’로 입지 구축

- 일부 국가는 냉전시대와 다르게 현실주의적 실리를 바탕으로 중간지대를 형성하며 양쪽 모두와 선택적 협력을 추구(한국금융연구원, 2024)

* 인도는 미국 주도의 협력체(QUAD, IPEF)에 참여하는 한편, 러시아와 경제적 교류를 지속

* 그 밖에 튀르키예,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등이 지역적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중, 선택적 실리 추구에 적극적이지 않은 중저소득 국가들 또한 양쪽 진영에의 명시적 참여를 거부하며 글로벌 사우스 그룹을 형성(한국금융연구원, 2024)

* 브라질 정부는,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의 일대일로(BRI) 불참 공식 선언(2024.10.28.), 단 BRI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브라질 인프라 프로젝트와 BRI간 시너지효과 창출 방안 모색중

-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초기에는 미중 경쟁에 따른 ‘어부지리’ 수혜를 얻는 정도였으나,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며 협력 수요가 증가, 글로벌 무대에서의 무게감이 더욱 커지고 있음.
- * 재러드 코언 골드만삭스 총괄사장, “글로벌 공급망에서 위상이 높은 국가는 독자 노선을 도모할 역량을 보유해, 미-중간 다양한 제휴를 제안할 중대 세력으로 자리 잡을 것”
- **(부상배경)** 높은 Δ 인구 증가율, Δ 경제성장률, Δ 핵심자원 등에 따른 시장 잠재력의 3박자를 갖춘 글로벌 사우스 지역이 미중 공급망 재편의 핵심 대안으로 부상
 - (인구 및 자원부국) 생산가능인구가 많은 인구구조와 풍부한 광물자원 등 유리한 여건도 글로벌 사우스의 성장 견인을 위한 여건 제공
 - * 인구대국(인도, 인니,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브라질), 자원부국(인니, 브라질, DR콩고, 몽골 등)
 - (공급망 재편) 미중전략 경쟁 속에 프렌드쇼어링, 니어쇼어링 등의 수혜자로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튀르키예 등 중견국이 부상
- **(경제 성장)** 글로벌 사우스의 GDP의 비중은 1992년 전 세계의 6%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12%로 두 배 가량 증가 *중국 포함시에는 31% (국방연구원, 2024)
 - IMF는 '29년까지 글로벌 사우스의 GDP 성장률(연평균 6.3%) 글로벌 노스(3.9%)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 '30년 이후에는 4대 경제대국 중 미국을 제외한 3개국(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이 될 정도로 약진 뚜렷(신범식, 2024), '40년 글로벌 사우스의 경제 규모가 미국과 중국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日 미쓰비시종합연구소)
 - * 세계 15대 경제대국에 글로벌 사우스 비중 확대 전망: ('22년) 3개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 ('50년) 7개국(인도,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이집트, 사우디, 나이지리아) (골드만삭스, 2022)

2 BRICS+국가들이 글로벌 사우스 맹주 국가로 국제사회 논의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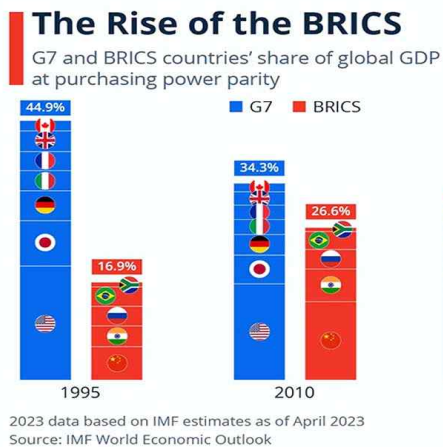
□ (BRICS) 인도, 브라질 등 BRICS 주요국의 글로벌 사우스 내 영향력 확장

- * 2009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창립한 경제블록으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회원국, 설립 13년 만에 회원국이 추가되며 중대 전기
- * 기존 5개국 외에 '24.1월부터 신규 5개국 가입: 사우디, UAE, 이란, 에티오피아, 이집트
- * '24.10월부터 13개 파트너국 포함: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벨라루스, 볼리비아, 알제리,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쿠바, 태국, 튀르키예

○ (BRICS+ 확장) 최근 글로벌 사우스 관련 논의는 실질적으로 BRICS 회원국이 주도하고 있음. 또한 '24년 총 5개국*이 신규 가입하며 영향력 확장세에 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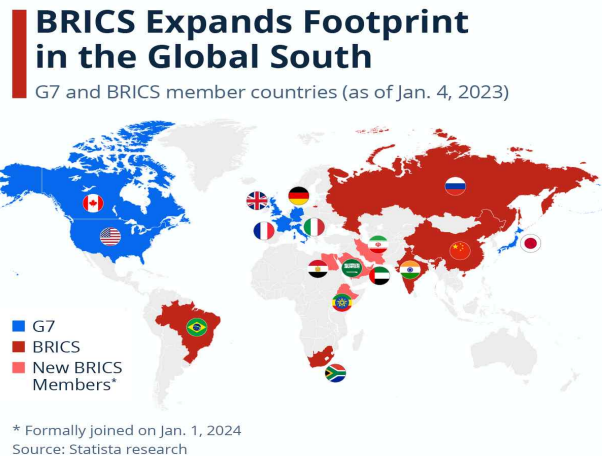
* 신규 5개국: 사우디, UAE, 이란, 에티오피아, 이집트 (아르헨티나는 가입 신청 철회)

<그림1> BRICS 및 G7의 GDP 성장 비교



자료: Statista(2023), 박민경(2024)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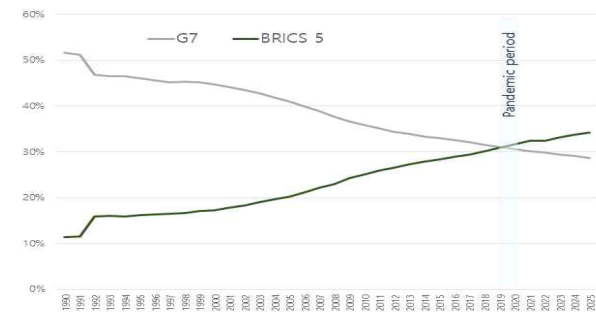
<그림2> 2024년 BRICS 영향력 확대



자료: Statista(2024), 박민경(2024)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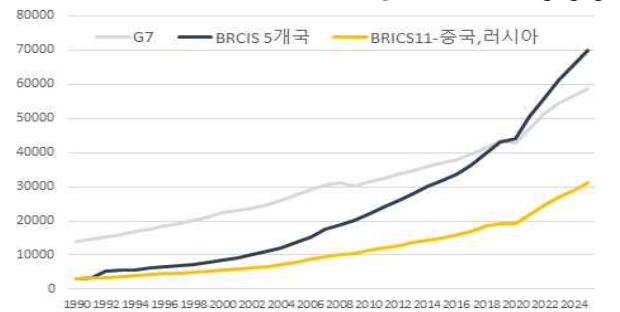
- BRICS 5개국의 전세계 GDP 비중(구매력 기준, PPP)은 '90년 11%였으나, 지속 성장하여('20년 32%→ '24년 34%) G7국가를 역전(IMF 데이터 기준)

<그림3> 전세계 GDP 비중기준 BRICS가 G7 역전



자료: IMF(2024) 기준 저자 재가공, GDP는 PPP current prices, 십억 달러

<그림4> 구매력 기준 GDP 총합은 지속 성장중



- '24.10월 정상회의(러시아서 개최)에는 22개국 정상을 포함한 36개국 대표단과 6개 국제기구 대표단 참석, 회원국 확대 없이* 13개국**과 '파트너 선언'
 - * 튀르키예, 태국('24.6월 의사 표명) 등 34개국이 BRICS 가입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 ** 파트너 13개국: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벨라루스, 볼리비아, 알제리,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쿠바, 태국, 튀르키예
- (인도, 브라질) BRICS 국가 중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인도와 브라질이 글로벌 사우스의 새로운 맹주를 자처하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음. 특히 최근 G20 의장국을 연달아 역임하여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고자 노력
 - * (인도) '23년 G20 의장국으로 글로벌 사우스 의제를 선도했으며, 미중경쟁의 반사이익으로 투자가 지속되며 성장동력을 확보, (브라질) '24년 G20 의장국(11.18-19)
 - ** 한편, '24년 G20 개최 직전 콜롬비아에서 UN생물다양성협약(COP16, 10월), 페루에서도 APEC 정상회의(11.10-16)가 예정돼, 중남미 국가가 글로벌 사우스에서 주요 아젠다를 다루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권기수, 2024)
 - * 브라질 대통령, 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 참석('24.2.17), 이집트, 에티오피아 방문

□ (G20) G20 정상회의를 이끄는 트로이카와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

- * G20는 아시아 외환위기(1997~8) 이후 주요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국제경제와 금융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1999년 설립한 협력체
- * 의장국(회의 안건수립 주도)은 12.1일부터 다음해 11.30일까지 회원국이 매년 순차적으로 역임
- (개도국 중심 의제)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인도네시아('22), 인도('23), 브라질('24), 남아프리카공화국('25) 등 4회 연속 신흥국이 맡으며, 국제사회 의제 주도
 - * G20 트로이카(직전·현재·차기 의장국) 모두 신흥국인 것은 역대 최초
- (인도) G20 의장국('23)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 G20서 채택된 뉴델리 공식 선언문에는 다수 개발도상국이 요구해 온 의제* 포함
 - * ▲아프리카연합(AU) G20가입 추진, ▲디지털 공공 인프라의 국제적 확산 등 개발도상국의 디지털화 지원(One Future 연합 제안),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글로벌 바이오 연료 연합 출범 등
 - * 채무탕감: 채무위기를 겪고있는 아프리카 등 50여개국에 대한 채무 탕감을 G20 회원국에 요청
- (브라질) '24년 의장국인 브라질은 ▲사회적 포용 및 기아 빈곤 퇴치,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등 3개 중점분야를 제시

<표1> 최근 G20 의장국과 주요 논의 의제

연도	의장국	주요 의제 및 공동선언문 합의 내용
2022	인도 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위기: 흑해곡물합의 지속, 농업시장정보체제 통한 식량시장 모니터링 강화, · 기후변화 대응: 개도국의 청정에너지 이동 지원, 손실피해기금(Loss and Damage Fund) 논의: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자원 2배로 증가('19→ '25년), · 기타: △물가안정 노력, △G20 공통 프레임워크로 개도국 부채 조정 가속화, 다자개발은행(MDB) 자원 확충, △글로벌 최저법인세 15% 신속 이행, △감염병 대응 등
2023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연합(AU)의 G20 가입 추진, △국제기구 역량 강화, △디지털 공공 인프라의 국제 확산, △경제회랑(IMEC), △글로벌 바이오연료 연합
	Voices of Global Sou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분쟁, 테러리즘, 지리 정치적 마찰, △식품, 비료, 연료가격 상승,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코로나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
2024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농업, 녹색금융(바이오경제 이니셔티브 등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 발전), △보건,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2025	남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F, 세계은행(World Bank)는 2025년 주제로 △기후문제 극복, △성 불평등 해소, △기근 종식, △디지털화 등을 지목

자료: 각종 발표자료 기반 재정리(2024)

□ **(기타) G7, G77 등 국제협의체를 통한 글로벌 사우스 협력 전략 수립 노력**

○ **(G7)** '23년(일본), '24년(이탈리아) 개최된 G7 회의에서 2년 연속 “글로벌 사우스”를 핵심 의제로 선정, 관련 국가 초청을 통해 동 지역과의 협력 강화 노력

* '23년 한국, 인도, 브라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8개국, '24년에도 모디총리 참석

* G7: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이 참여하는 주요국 회의

* 최근 G7의 경제력 약화세: 1990년 G7국가의 GDP는 전세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현재는 30%도 되지 않은 상황(IMF)→ G7 차원에서도 새로운 협력 동반자가 필요

○ **(G77)** '23년 회의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 과학기술 혁신의 날 지정(9.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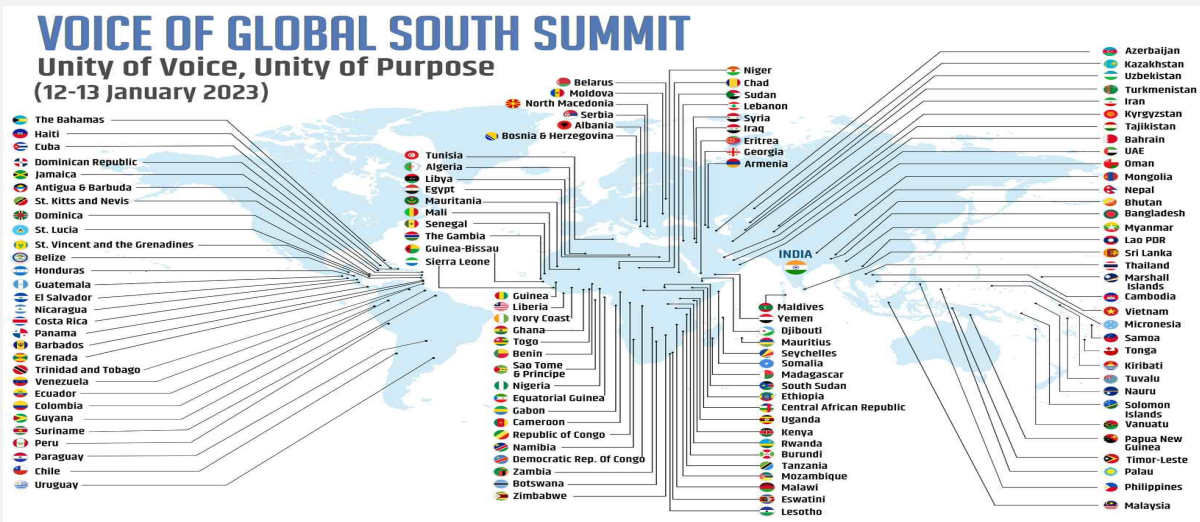
* 1964년 개도국 77개국으로 출발, 현재 134개 개발도상국 가입(인구 기준 전세계 80%)

- G77+China 회의 개최('23.09): ‘아바나 선언’ 채택: ▲과학기술 혁신, ▲기후 변화, ▲디지털 격차 해소(지속가능개발에 관한 프로그램 아젠다 2030 완전 이행)

※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 정상회의(Voice of Global South Summit)※

- '23년 G20에서 인도 주도로 설립한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Voice of Global South)」 회담은 개발도상국이 국제협력 안건에 관한 입장, 우선 순위, 해결책 논의
- 주요 논의 내용: △전쟁, 분쟁, 테러리즘, 지리정치적 마찰, △식품, 비료, 연료가격 상승,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코로나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이 언급
- 참여국: 총 125개국 (아프리카 47개국, 아시아 31개국, 중남미 29개국, 오세아니아 11개국, 동부 유럽 7개국 등)

<그림5> G20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 정상회의(2023.1) 참여국가(총 125개국)



- (주요국 대응) 주요국은 글로벌 사우스 지역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적극 행보
 - (중국) 일대일로를 기반으로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적극 진출(인프라, 제조업)
 - (일본) 경제산업성, '25년 경제산업정책 중점안에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언급
 - * 日-ASEAN 경제장관회의('24.9) 등을 통한 공동 전략 수립 등 실질적 논의 지속
 - (미국)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 파트너십(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PGI)을 통한 인프라 개발 및 투자 확대
 - (EU)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기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
 - * 공급망 강화, 교역촉진,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27년까지 약 1,500억 유로 규모의 투자
 - (브라질) 중남미 역내 국가 및 포르투갈어 사용 아프리카 국가 대상 ODA 등 협력
 - * 브라질-나이지리아, 12억 달러 규모 농업 기계화 이니셔티브 추진 등
 - (GCC-중앙아) 최근 중양아시아 내 중동 기업 진출 확대되며 양 지역간 협력 확대
 - * 카자흐스탄-카타르, 주요 에너지 투자 프로젝트(천연가스, 수력, 화력 등) 추진 합의(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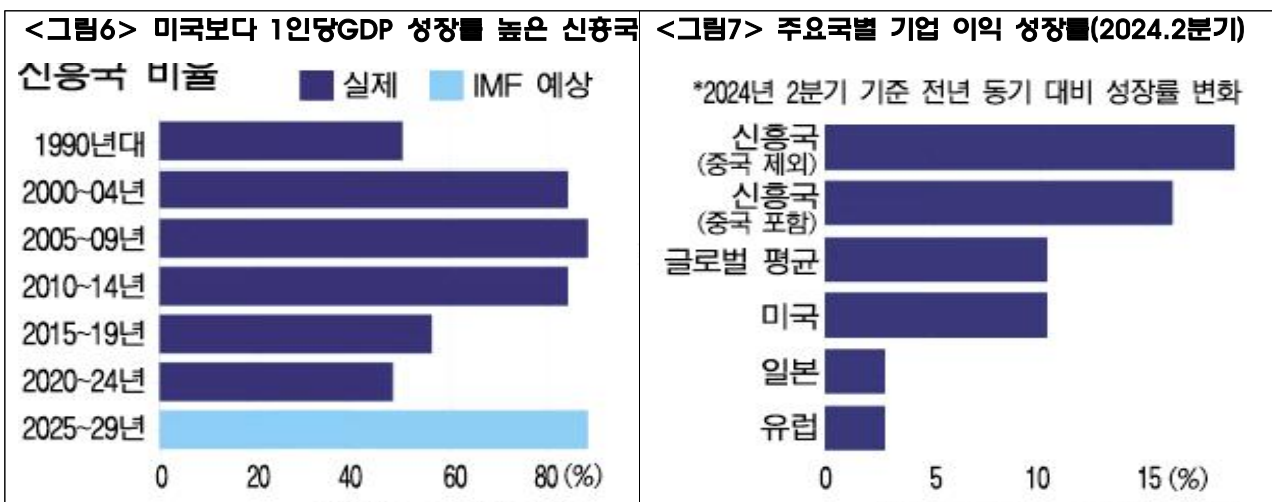
II

주요 협력이슈 및 중점 협력국 전략

이슈 1 나홀로 성장세, 인구 대국의 소비시장

- (배경)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 대국의 소비시장, 도시화에 따른 구매력 상승
 - (구매력이 증가하는 인구 대국) 기존에 저렴한 인구를 앞세운 생산거점으로만 알려진 신흥국들이 질적으로도 성장하며 소비시장 측면에서도 매력적으로 부상
 - 루치르 샤르마 록펠러 회장, 신흥국 경제가 탄탄한 재정 상태를 기반으로 “대대적 반등 중”이나, 이 부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언급(FT, 2024)
 - * IMF에 따르면 1인당 GDP가 미국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경제국의 비중은 지난 5년간 48%에서 향후 5년내 88%로 급증할 전망
 - * '24.2분기 중국을 제외한 신흥시장 기업 수익은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하며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10%) 수치를 상회함. 신흥시장 기업 수익률이 18개월째 개선 중
 - 글로벌 사우스를 대표하는 신흥국들은 기존 서방시장(인구 고령화, 경제성장률 저조)과 대조적으로 최근 상승세(젊은 인구, 높은 경제성장률)를 주도하고 있음.

- * 중위연령(전세계 평균 31.8세): 일본(49.5), 독일(46.7), 한국(45.0), 태국(41.0), 중국(39.8), 미국(38.5), UAE(35.7), 브라질(34.7), 튀르키예(33.6), 베트남(32.7), 콜롬비아(32.4), 말레이시아(31.4), 인도네시아(31.2), 멕시코(30.6), 남아공(30.1), 인도(29.5)
- * 2024년 경제성장률(전세계 3.2%, IMF): 인도(7.0), 중국(4.8), 미국(2.8), 인도네시아(5.0), 브라질(3.0), 방글라데시(5.4), 일본(0.3), 베트남(6.1), 필리핀(5.8), 태국(2.8).



자료: IMF, UN, Deutch Bank, [Financial Times\(2024.8.26.\)](#), [내일신문\(2024\)](#) 재인용

- (인도네시아) 세계 4위 인구(2.8억명), 아세안 최대 소비시장으로 GDP 성장세가 지속*, '50년 세계 4대 경제규모의 글로벌 소비 중심지로 성장 전망, 인구의 54%가 젊은 층으로 트렌드에 민감하고 소비성향이 높음.
 - * 1인당 GDP: ('19) 최초로 4천달러 돌파→ ('24) 5,500달러→ ('27) 7,000달러 이상
 - ** 젊은 층이 사회 주역이 되는 10년내로 인도네시아의 내수시장 규모 추가 성장 예상
- (인도) '31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7%*에 달하는 등 경제 낙관론 지속... 단기적으로 경제둔화 요인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GDP규모가 '31년 6.7조 달러, 1인당 국민소득 4,500달러로 증가 전망(S&P, 2023)
 - * 인도는 G20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국으로, 향후 7-8년내 경제가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는 인도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고 차별화된 수치임.
- (베트남) 1억 인구, 중위 연령 32세의 젊은 국가로, 중산층 증가중*
 - * 중산층(일 최소 11달러 소비): ('00) 전체 인구의 10% 미만→ ('24) 40%→ ('30) 75% 전망, 피라미드 최상층(일 30달러 이상 소비) 비중도 '30년 인구 20% 전망(McKinsey)
- (남아공) 전체 인구의 56%가 30세 이하인 젊은 국가(중위연령 27.1세), 안정적 도시 국가, 글로벌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층이 소비시장과 사회변화 주도
-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최대인구 보유국으로 온, 오프라인 유통망 발전
- (도시화) 가처분소득 증가, 신흥국의 도시화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로 신규 지출
 - * 핵가족화, 가처분소득 높은 소규모 가구 등장, 보석, 패션, 가정 및 리빙, 포장 식품, 음식 서비스 등에서 더 많은 지출이 발생 전망
- (인도) 인도 도시 인구는 향후 15년 내 1.25~1.3억 명(프랑스, 영국을 합친 규모)으로 증가 및 빠른 도시화 속도에 따른 지각 변동 전망
- (베트남) 도시화율 확대*에 따라 소비가 기존의 하노이, 호치민 중심에서 하이퐁, 다낭 등 타 지역으로도 확대 전망. 도시인구 비율도 증가**해, 향후 10년간 베트남 도시 인구가 약 1천만명 증가가 전망됨
 - * 도시화율: ('22) 41.7%→ ('30) 50%→ ('40) 60%, 도시인구 비율('23년 35%→ '30년 44%)
- (남아공) 전체 인구의 2/3가 도시 거주, 주요 도시 개인 자산 규모도 大
 - * 아프리카 10대 부자 도시 중 요하네스버그(1위), 케이프타운(2위), 더반(5위), 프레토리아(8위)포함

<표2> 주요 글로벌사우스 국가의 인구, 경제동향으로 본 소비시장 잠재력

	인구수 (백만명)	연평균 인구성장률 (%)	젊은 인구 (15-64) 비중(%)	중위연령	1인당 GDP(PPP기준)	GDP 성장률 (%)
전세계	8,025.0	1.2	65	31.8	23,009.8	3.2
인도	1,428.6	1.3	68	29.5	10,175.8	7.0
인도네시아	277.5	1.1	68	31.2	15,612.8	5.0
파키스탄	240.5	1.9	60	22.7	6,212.0	2.4
나이지리아	223.8	2.6	54	19.2	6,318.2	2.9
브라질	216.4	0.9	70	34.7	20,584.4	3.0
방글라데시	173.0	1.3	68	29.2	9,065.7	5.4
멕시코	128.5	1.2	67	30.6	25,601.6	1.5
에티오피아	126.5	2.8	58	20.2	3,109.3	6.1
필리핀	117.3	1.8	64	25.4	10,755.5	5.8
이집트	112.7	2	62	24.1	18,816.5	2.7
베트남	98.9	1	68	32.7	15,194.3	6.1
이란	89.2	1.3	69	33.3	17,921.7	3.7
튀르키예	85.3	1.2	68	33.6	44,151.0	3
태국	71.8	0.6	69	41.0	23,422.9	2.8
탄자니아	67.4	2.9	54	18.9	3,972.6	5.4
남아공	60.4	1.1	66	30.1	15,847.4	1.1
케냐	55.1	2.5	60	20.9	6,323.5	5
미얀마	54.6	0.8	69		5,905.2	1
콜롬비아	52.1	1.2	70	32.4	21,548.0	1.6
우간다	48.6	3.1	54	16.1	3,098.1	5.9
수단	48.1	2.6	56	19.1	3,137.2	-20.3
아르헨티나	46.7	1	65	33.0	29,362.7	-3.5
알제리	45.6	1.7	63	28.9	17,027.0	3.8
사우디아라비아	36.9	2.3	71	32.0	54,991.7	1.5
폴란드	36.7	-0.2	67	42.4	49,464.0	3
우즈베키스탄	36.4	1.7	64	28.7	9,724.7	5.6
페루	34.4	1.1	66	30.1	16,717.4	3
말레이시아	34.3	1.7	70	31.4	37,247.7	4.8
UAE	9.5	4.6	83	35.7	83,902.7	4
Lao PDR	7.6	1.5	65	25.0	9,326.3	4.1
키르기스스탄	7.1	1.6	61	28.1	7,102.8	6.5

자료: World Bank, IMF(2023년 혹은 2024년 수치 사용) 데이터 기반 재정리

식품, 뷰티 등 소비재의 한류 레버리지

- (품목) 프리미엄 소비재, 할랄 상품, 라이프스타일 관련 서비스 등
 - (프리미엄 소비재) K뷰티, K푸드 위주 우선 진출 → 연관 품목 및 서비스로 다변화
 - * '24.1-10월 라면 수출액 최초로 10억 달러 돌파(10억 2천만 달러), 전년비 30%증가, 한국 드라마, 영화 등 K콘텐츠 확산과 젊은 층 중심으로 퍼지는 라면 챌린지가 주 요인
 - (현지 맞춤형 상품) 국가별로 인프라, 경제, 문화적 상이함을 이해하고 현지 기업 혹은 유통망과 연계해 맞춤형 상품 출시
 - (할랄 시장)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동 등 진출을 위한 맞춤형 전략 구사
 - * '24년 글로벌 할랄 시장 규모 1.97조 달러 규모

<2024년 10월부터 식음료 제품에 할랄 의무화가 시작되는 인도네시아 중심 진출 활발>

- * (CJ)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동남아, 중동 등 글로벌 할랄 시장 전체를 포괄하는 'K-할랄 전진기지'로 육성 계획... 2011년부터 핫반, 김, 김치 등 100여개 제품에 할랄 인증 완료, CJ푸드빌 '뚜레쥬르', '20년 인니에서 할랄 인증 취득 후 무슬림용 베이커리 제품 판매중
- * (팔도) 비락식혜 포함 음료 5종 할랄 인증('23), 현지 중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 * (삼양) 해찬들 고추장, 불닭볶음면 할랄 인증,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할랄 인증 후 수출
- * (SPC) 파리바게트 말레이시아 점포를 위해 조호르바루 공장 준공
- * (BBQ)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전 제품 할랄인증 받은 제품 사용

- (진출전략) 한류 등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맞춤형 소비시장 공략
 - (맞춤형 공략) △한류에 대한 관심이 한국 제품의 소비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대, △최근 증가하는 소비자층을 세분화하여 고도화된 마케팅
 - (프리미엄, 젊은 층) 아세안은 물론 떠오르는 시장인 인도 아프리카의 신흥 부자, 신흥 중산층을 타겟으로 프리미엄 소비재 마케팅 강화

- ◆ (베트남) 롯데쇼핑,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의 주요 고객층을 '9세 이하 자녀를 둔 30대'로 정하고 이들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를 대거 구비
- ◆ (인도네시아) 화장품 회사 코스맥스, '16년 취득한 할랄인증 기반으로 향수Lab 오픈... MZ세대 중심으로 자기 관리 중요성이 확산, 프리미엄 및 중저가 향수 시장 고르게 성장 전망
- ◆ (필리핀) '24년 1인당 GDP 4천 달러 최초 돌파(IMF 기준), 소비자 구매력이 늘어나며 필리핀 내 소비 형태도 변화. 중산층이 증가하고 헬스케어, 디지털 서비스, 전자상거래 분야 급증
- ◆ (인도) 최근 신흥 부자가 1억명 이상 등장할 전망으로, '24.1분기 해외 사치품 지출액이 5년전 대비 250% 증가...명품 브랜드들 일찍이 마케팅 돌입(Economic Times, '24.11.7)

- **(최근 한류 인기 증가세)** 한류의 수출유발효과를 활용, 주요 소비재 진출 강화
 - 최근 5년간('17~'21) 화장품, 음악, 방송 등 한류 밀접 품목의 수출 급증, 한류의 수출유발로 인한 경제효과는 ▲생산유발 총 37조원 상당(소비재 30.5조원, 문화콘텐츠 6.5조원), ▲부가가치액 13.2조원 (한국경제연구원, 2023)
 - * 한국 문화의 국제적 파급력은 2017년 세계 31위/80개국에서 2022년 7위/85개국으로 24단계 급등(美 US News-와튼 스쿨, “글로벌 문화적 영향력 랭킹”)

- * (K푸드) CJ제일제당, 미국, 유럽, 일본 등 외에 미진입 국가 진출을 본격화('23.1)하며, 7대 글로벌 전략제품(만두, 가공밥, 치킨, K-소스, 김치, 김, 롤 등) 중심 진출을 선언
- * (K컬처) 태국은 생산 역량을 갖춘 베트남과의 지리적 인접성 활용해 공격적 사업, K-컬처 확산 국가인 태국 내에서 K-콘텐츠 적극 활용해 인지도 향상 전략

- **(한류 영향력 확산)** 전통적으로 한류가 수용되어온 지역(동북/동남아)에서 벗어나, 서남아(인도), 중동/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한류 확장
 - * 해외 한류실태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사우디, 이집트, 인도 등은 한류에 대한 높은 호감도가 한국 제품/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로 응답(2023)

<표3> 한류 호감비율 및 한국 제품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별 선호도

분야	주요 응답 국가
한류 호감 비율	· 인도네시아(86.3%), 인도(84.5%), 태국·UAE(83.0%), 베트남(82.9%) · 응답자 평균(68.8%)
한국산 제품/서비스 구매 의향	· 이집트(75.6%), 사우디아라비아(73%), UAE(72.9%), 베트남(72.1%), 인도(70.1%), 태국(65.4%), 말레이시아(58.8%), 남아프리카공화국(57.4%), 브라질(55.3%), 인도네시아(53.%) 등
한국 제품/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 인도네시아(81.4%), 베트남(78.6%), 사우디아라비아(74.5%), 이집트(74%), 인도(73.3%) 순으로 전체 평균(57.9%) 대비 높은 관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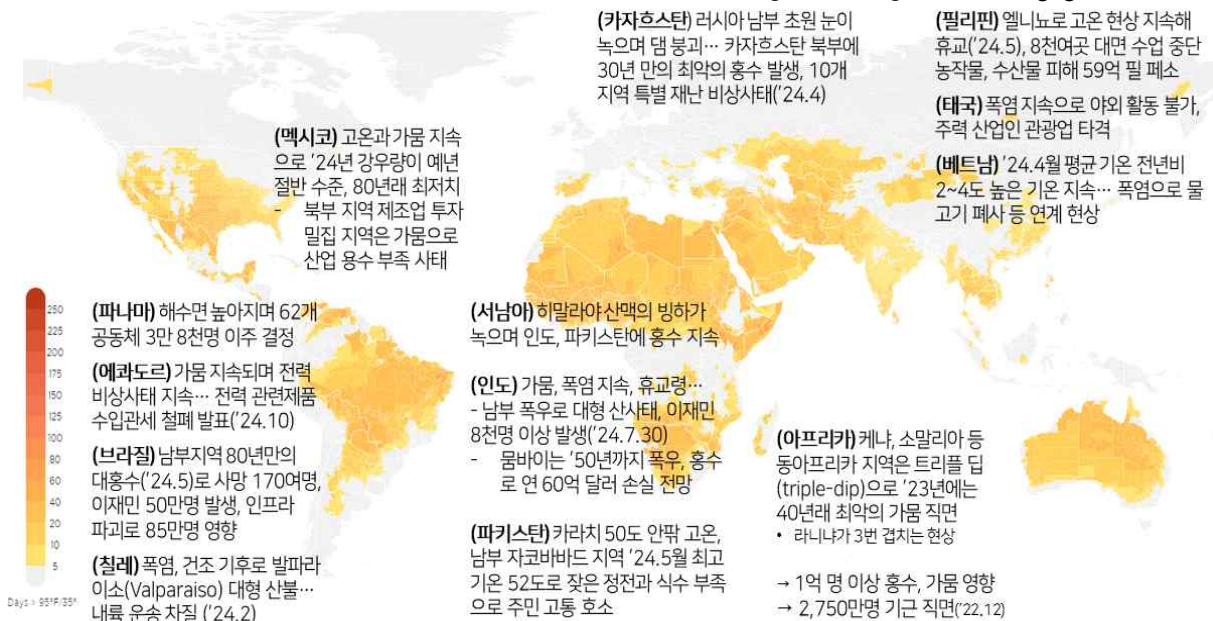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4 해외 한류실태조사 결과”, 해외 26개국 2만5천명 대상 설문

- 👉 **한류에 대한 관심이 한국 제품의 소비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대**
 - * 긍정적 이미지 메이킹으로 한류 팬에 한정된 기존의 주요 소비자층을 일반 구매자로 확대
- 👉 **화장품, 식품, 라이프 스타일 관련 솔루션 등 진출, 인증 관련 지원 필요**

이슈 2 기후변화 직격타를 맞은 신흥국의 인프라 구축 노력

- (이슈) 역대급 기후변화로 신음하는 세계, 전력, 수자원 등 인프라 부족
 - (자연재해) 최근 가뭄, 폭염, 홍수, 산불 등 이상기후가 연이어 발생하며 피해
 - 글로벌 기후변화로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직간접적 피해 지속. 특히 기후 변화 대응 여력이 부족한 저개발국은 타격이 더욱 큰 상황
 - * 전세계 12억명이 기후변화 고리스크, 최빈국들의 피해가 가장 심각(World Bank, 2024.1)
 - * (아프리카)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전체 GDP의 5% 상당, 관련 비용은 '50년 까지 동·서아프리카 지역 GDP의 15%로 증가 전망(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 2024)
 - * (중미카리브) 자연재해로 카리브 매년 GDP 2.5%, 중미 GDP 0.8%피해(IMF, 2024)
 - (초국경) 일부 지역에서는 비정상적 고온 현상으로 인해 인근 국가의 눈이 녹아 이례적인 수준의 홍수 발생 (북부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영향, 파키스탄 히말라야 영향 등)
 - 극단적인 기후 현상에 따라 거주지를 잃고 이주하는 기후 난민도 증가
 - * 해수면 상승으로 파나마는 3.8만명 본토로 이주 계획,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 시작
 - * 자국내 난민감시센터(IDMC), '23년 기후 재난으로 자국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은 2,600만 명으로 분쟁·정치박해 이주민 수(2천만명)를 상회, '50년 10억명 전망

<그림>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의 최근 2년간 이상기후 현상 및 관련 영향



지도 출처: Climate Impact Map(최종접속 '24.10월), 향후 20년(2020-39)간 35도씨 이상 일수 기준
자료: 언론 보도, KOTRA 각 무역관 현지 동향 보고 등 중심으로 재정리

- **(산업 영향)** 주요국에서는 인프라 파괴, 농축산업, 제조업, 광업 생산 저하 및 직접적인 인명피해 등 피해 최소화 및 전력난 우려로 연이어 대응책 마련 중
 - 수자원 부족에 따른 식량 생산, 전염성 질환, 인프라 등 기반시설 파괴 등 전반적인 경제 영향 지속, 특히 농업생산, 산불 피해 등에서 피해가 높게 나타남.
 -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며('24.5월 인도 최고기온 49.9도) 빈곤층, 농업, 제조업 등에 영향
 - * (농업) 인도는 50도 넘는 폭염이 이어지며 일부 지역 낮동안 야외활동 금지조치, 밀 농작 영향 기간이 확대(10→30일)되며, '24년도 수확량 감소 및 국제가격 상승 전망

<표4> 기후변화의 관측된 영향 및 관련 손실과 피해

구분	세부내용	전세계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유럽	북미	도서국
물 가용성 식량 생산	물부족	●●	●●	●●	●	●●	●●	●●●
	농업/곡물 생산	●●	●●●	●●●	●●	●●●	●●●	●●
	동물/가축 생산	●	●	●	●●	●●	●	●●
	어업/수확 생산	●●	●●	●●	●●	●●	●●	●●●
건강 및 웰빙	전염성 질환	●●	●●●	●●	●●	●●	●●●	●
	산불 피해	●●●	●●●	●●●	●●	●●	●●●	●●●
	정신 건강	●●●	-	-	-	●●●	●●●	-
	이주	●●●	●●●	●●●	●●	●	●●●	●●
도시, 정주지 및 기반시설	내륙 홍수/피해	●●●	●●	●	●●	●●	●●	●●●
	홍수/폭풍 피해	●●●	●●	●●●	●	●	●●●	●●●
	기반시설 피해	●●●	●●	●●	●●	●●	●●●	●●●
	주요 경제 피해	●●	●●●	●●	●●	●●	●●●	●●●

자료: IPCC(2023), 기후변화 2023 종합보고서

주: 붉은 셀은 부정, 녹색 셀은 긍정·부정영향 /각 분야별 기후변화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로 표기

- **(취약한 전력 인프라로 이중고)** 최근 대부분 국가의 산업 수요 및 소비자 수요 증가*로 전력 수요 급증. 단, 신흥국은 만성적 전력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해 정부의 개선 노력 지속중
 - * (산업수요) 제조업 투자진출 및 데이터 건설 증가, (소비자 수요) 이상고온 냉방기 사용↑
 - (베트남) 정부, 전력난 우려로 폭스콘 등 북부 소재 기업에 전력 사용량 감축 요청
 - * '23년 엘니뇨로 인한 가뭄으로 수력 발전량이 감소, 베트남은 14억 달러 규모의 생산 피해가 발생. 정부는 자국내 폭스콘사에 전력 소비량의 30% 자발적 감축 요청('24.5)
- **(AI 붐의 두 얼굴)** 신흥국 내 데이터 센터 투자 증가, 탄소배출과 가뭄 등 직면
 - (동남아) 최근 MS·아마존·애플·구글 등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며 동남아시아 지역이 AI 등 첨단 분야의 격전지로 급부상 중임.

- * 알파벳, 말레이시아에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시설 건설 등 20억 달러 투자 계획('24.5), MS, 4년에 걸쳐 말레이시아에 22억 달러, 인도네시아에 17억 달러 투자 발표(4.30)
- * 태국 투자청(BIO)은 AWS, 알리바바, 화웨이 등 37건의 데이터센터 건립,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등 투자 프로젝트 확정, 구글, MS도 정부 협의 중(Bangkok Post, '24.7)
- (중남미) AWS, 멕시코에 신규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건설(약 50억 달러) 발표('24.2), 브라질에도 '34년까지 101억 헤알(2.4조원) 투자 예정('24.9), 칠레에는 최근 Google, Oracle 등이 추가 데이터센터 설립함.
- (환경 영향 우려)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라 전력 및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IEA, 2023)하고, 수자원 사용이 급증**한다는 비판도 이어져(Nature, 2024; California Riverside Univ. 2024)
 - * 2022년 기준 전 세계에서 사용된 전력량 가운데 데이터센터의 비중은 1.5%로, 전력 발전을 위해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브라질의 연간 배출량을 상회
 - ** “인공지능 열풍에 소비되는 물은 가뭄 등 기후위기로 이미 줄어들고 있는 수자원을 위협하며 장래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
 - ** AI 데이터센터에서 연간 소모하는 수자원은 2027년 기준 42억~66억 톤 상당 전망

- * 구글(Google),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칠레 산티아고(Santiago) 데이터센터 개발 중단 발표('24.9): 칠레 법원은 최근 동 프로젝트의 물 사용량 관련 우려로 데이터센터 설립 승인을 일부 취소한 바 있음. 정부는 지역사회의 우려 등을 반영해 지난 2월 프로젝트 승인을 일시 철회하였음. 이에 따라 구글은 규제 당국에 허가 신청 절차를 중단하고 물 집약적 냉각시스템(water-intensive cooling system)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 * MS, 멕시코 스타트업 토로토(Toroto)와 협약을 체결, 멕시코 열대우림 복원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23만4천개 이상의 탄소 크레딧 구매('24.9), 탄소배출 적은 목재 센터 건설중('24.11)

□ (대응) 기후변화 대응, 외자 유치를 위한 주요국 인프라 확보 정책 이어져

○ (기후변화 직접 대응) 기후대응 역량 강화 목적 정부의 인프라 개선 정책

- (페루) 페루 재정경제부, 엘니뇨 피해 예방을 위해 38억 솔(10억 달러 상당) 투입, 교통통신부, 주택건설부, 농림부 등 다양한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
 - * 가뭄, 홍수 등이 농업, 어업, 건설업 등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생산성 하락 및 Dengue열 감염 증가('23년 사례 전년비 378%↑)... '24년 정부 예산 증액으로 피해 예방 만전
 - * 재정경제부(MEF) 법률 제31952호: 긴급 상황 발생시 (비상사태 해당) 지방 정부가 기계/장비를 직접계약 및 구매하도록 허용(2024.2.3.-2026.12.31.까지 유효) (2024.2.5.)

- (브라질) 신성장촉진프로그램(Novo PAC)을 통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27개주에 약 1.7조 헤알*(약 3,410억 달러 상당) 투자 예정

* 2026년까지 1조 4000억 헤알(2800억 달러), 2026년 이후 3000억 헤알(600억 달러)

- * 주거환경, 에너지 전환 및 보안, 교통(운송), 동 3대 분야가 전체 투자액의 90% 비중
- * 주거환경 분야에 총 6,100억 헤알을 투자해 빈민가 도시화, 위생설비, 홍수대비 Minha Casa Miha Vida 프로젝트 재개 등에 투자할 예정이며, 수자원 분야에도 300억 헤알 투입 예정
- * 정부 인프라 투자액 및 건설장비 판매 증가: ('23)5.2만→ ('24)5.5만대 판매 전망

- (아제르바이잔) 물 부족으로 수도 인근 상수도 공급 개선을 위해 해수 담수화 식수 생산 시범 프로젝트 시행(2024.2)

-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COMEX), 전력난 지속으로 모든 발전기(HS코드 8502로 분류되는 품목)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 철폐 발표(10.11)

* (수입관세) 기존 5-20%→ '24.10-'25.10 0%, (부가가치세) 기존 15%→ '24.12.31까지 0%

- (남아공) 수자원 인프라 관리 부실로 잦은 단수, 물 부족 대비 순환 단수 가능성

* 강수 감소 상황에서 수자원 관리 부실로 사태가 심각해지며 경제 성장 저해 및 사회 불안정

○ (전반적 인프라 강화) 도시개발, 항만, 물류 개선 등 인프라 강화 정책

- (필리핀) 국가인프라 개선계획(BBM: Build Better More) 일환으로 '24년 지출 계획에 202달러 상당 인프라 개발 예산을 책정, 도로, 공항, 항만 등 교통 인프라, 디지털 연결망, 수자원 관리 등 전반적 인프라 개선 목표

* 마닐라, 세부, 다바오 등 3대 도시 중심 개발. 총 1,57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플래그십 프로젝트(IFP) 197개 사업을 추진 중, 이 중 15개만 종료되어 향후 잠재력 다대

- (인도) "스마트시티 미션"(전국 100개 스마트시티 개발 목표), "AMRUT"(전 가정에 상수도 공급 및 하수도 관리)을 통한 삶의 질·환경 개선 정책

* 인도는 2020년 기준 도시 인구의 49%(2.3억 가구) 빈민가에 거주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도시 환경, 서비스 개선 등 스마트시티 개발에 집중

- (캄보디아) 도로, 철도, 교량, 공항, 운하 등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추진

* △프놈펜-바벳 고속도로(캄보디아 제2의 고속도로) '27년 완공 예정, △프놈펜-포이펫 고속철도(최초의 고속철도) 타당성 조사 완료, △프놈펜 신공항 '25년 중순 개장 예정, △최초의 메콩강 대운하 건설 착공 추진('28년 완공 목표)

- (모로코) 지속되는 가뭄*에 대응해 '20-'27년간 수자원 시설 예산 143억 달러로 28억 달러 증액, 댐 18곳 신축, 해수담수화 시설 투자 강화

SOC 인프라, 스마트시티 진출 유망

□ (품목) 재해 대응, 전력, 교통 등 관련 인프라 및 관련 자재 수요 급증

재해 대응	▲예방, 예측 등 조기경보 시스템, ▲관련 기계 및 인프라: 자동소화장치, 화재 종합방재, 산불 진압 시스템, 에너지 절약형 스팀터빈 등
기후 대응	에어컨, 냉난방공조(HVAC), 스마트 빌딩 시스템
전력	발전기, 기자재, 발전소 등 프로젝트 수주, 칠러, ESS 등
수자원	수자원 인프라 관련 기술 협력, 현지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솔루션 제안 - 담수화 플랜트, 물 정화 시스템, 물 재활용 시설, 상수도 도관 관리 등 - 물 절약 장비, 디지털 수자원 관리 시스템, 댐건설 - 해수 담수화 플랜트, 하수 재활용 및 고효율 정화 시스템, 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수자원 관리 시스템, 수자원 관리 자동화 솔루션 등
대기질	스마트 대기질 측정 기기 (Smart Air Quality Monitor), 공기 측정기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솔루션, 관련 에너지 인프라, 기자재 등
인프라	도로, 항만, 관련 건설 기자재 및 중장비 등

- (재해대응 인프라) 위기를 기회로, 늘어날 민관 수요 중심으로 현지 진출
 - 재해 예방시스템, 인프라, 에어컨 및 냉난방공조(HVAC) 등 진출 유망
 - (도시 기본 인프라 구축) 도로, 항만 등 관련 건설 기자재, 스마트시티 등
 - (건설중장비) 주요국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증가로 굴삭기, 기자재 등 수요
 - * 인도 건설중장비 산업 '23 회계연도에 10만대 판매량 돌파(전년비 26%↑), 굴삭기 수요 지속 증가 전망(印 건설중장비 교역시장 韓점유율 '23년 29.82%- 전년비 13%p ↑)
 -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설립 관련 플랫폼, 솔루션, 관련 기자재 등
 - * 스마트 서비스 플랫폼 전문 기업,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BCDA)과 공동 협력 준비중
 - (데이터 센터 대응) 전력, 수자원, 칠러* 등 냉난방공조(HVAC) 등 관련 인프라
 - * 칠러로(냉매로 물을 냉각시켜 찬바람 제조, 냉방을 공급) 데이터센터 냉각시장 공략
- (전략) 신흥국의 재원 상황 등을 고려, 안정적인 투트랙 전략 활용
- 프로젝트의 경우 ODA 등 국가 사업 혹은 국제기구(WB, IDB, ADB 등) 공동 재원 사업, 발전기, 기자재 등은 현지 유력 기업 및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안전성 제고

이슈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식량안보 협업

- (이슈)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플레이션(극한 날씨로 식량 물가 인상) 본격화
 - (애그플레이션) 주요 작물 생산 지역에서 가뭄, 폭우, 서리 등으로 작황 부진이 이어지며 밀, 커피, 코코아, 올리브 등의 농산물 가격 상승
 - * (커피) 뉴욕 아라키바 커피 선물 거래 13년 래 최고치(파운드당 2.6달러)...브라질 가뭄, 베트남 태풍 영향, 프리미엄 원두 가격은 '24년 전년비 약 40%↑(Bloomberg, '24.9)
 - * (오렌지) '24.5월 오렌지 주스 원액 선물가격 역대 최고치...연초대비 50% 폭등: 최대산지인 브라질과 미국 플로리다주가 가뭄, 황룡병 등에 시달리며 생산에 타격
 - 기후위기로 10년 뒤('35년) 전 세계 식량 물가가 연 최대 3.23%p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에 영향(전년비 1.18%p↑) 가능성 ([Nature Communications, 2024.3](#))
 - 특히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이미 기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저위도 국가들은 연중 식량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며 물가상승률 더 클 가능성
 - * 고위도 지역은 여름철에만 집중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
 - * '23년 중남미카리브(LAC) 평균기온은 사상 최대 온도 기록(1991-2020년 평균 대비 0.82도↑) 멕시코는 평균대비 0.88도 높아 온난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중([WMO, '24.5](#))
 - (새로운 위기) '24년 2분기부터는 엘니뇨가 끝나고 라니냐*가 도래, 한파와 가뭄이 이어져 기후 플레이션을 추가적으로 자극할 것이란 분석이 대두
 - * 라니냐(La Nina)는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되는 현상으로 전세계 옥수, 대두 핵심 공급처인 북미에는 강추위는, 남미에는 가뭄을 유발
 - * '24년 7-9월 발생 확률 65%, 8-10월 발생확률 77%(미국 해양대기청 NOAA)
 - (천연가스 가격 상방 압력) 라니냐는 동남아 지역과 중국 남부의 해수면 온도 상승과, 동태평양 연안 해수면 온도 하락을 유발하며 겨울철 난방 수요를 자극해 궁극적으로 천연가스 상방 압력으로 자극할 것
 - (곡물가 상승에도 영향)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질소계 비료(전체 비료 시장의 약 70%)의 가격도 동반 상승하며 옥수수 등 곡물 가격에 전가
 - (기후변화의 직격타) 특히 신흥국들은 전체 산업에서 1차 산업 종사 비중이

높은 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수산업, 물류의 영향에 따른 타격이 큼.

- (베트남) '24.3-5월 발생한 10년래 최악의 가뭄으로 '24년 원두 생산량 10~16% 감소 전망(Reuters, 2024) 9월초 태풍으로 중부 고지대 피해
- (브라질) 5월 발생한 전례없는 대홍수로 대두, 옥수수 등 재배시설에 피해 발생, 대두 생산량 15%, 밀 생산량 4% 감소 전망(美 농무부), 기상악화, 과수병으로 오렌지주스 가격도 상승(브라질은 오렌지 수출 1위국)

- ◆ 브라질 최대 곡창지대인 남부 히우그란지두술주에서 역사상 전례없는 대홍수가 발생, 2주만에 1년치 강우량이 쏟아지면서 사망 2백여명, 이재민 220만명 발생. 피해액 10억 달러 상회 전망
 - * 브라질 최대 곡창지대인 남부 히우그란지두술 주에서 대두 생산량 최대 15% 감소 예상, 홍수 피해가 심각해 토양의 양분이 모두 유실되면서 올해는 경작 불가능한 상황(YTN, 2024.11)
 - * 가금류, 돼지고기 생산시설 파괴: 축산업 10곳 육류 포장 공장 운영 중단
 - * 강이 범람하며 공항 활주로, 철도, 다리까지 잠기며 곡물 화물 운임비용도 증가
- ◆ 브라질 남부 홍수는 100~250년 만의 재해였으며, 향후 온실가스 증가로 기온이 1.2~2도 증가시 유사한 재난이 1.3~2.7배 더 많이 발생할 것(WWA, 2024.6)

- (페루) 엘니뇨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으로 멸치 어획량이 급감(2022. 12월 104만톤 → 2023.12월 16만 톤)하는 등 직접 피해
- (모로코) 사상 처음 6년 연속되는 가뭄으로 '23년 농업성장률 1.4%, 국제 건조지역 농업연구센터는 열, 가뭄, 해충에 강한 신규 밀 품종 개발중, 농업부는 물 사용률이 높은 과실류(감귤, 아보카도, 수박) 재배를 제한하고 가뭄에 강한 견과류(피스타치오, 아몬드), 올리브, 대추야자 재배 장려
- * 국왕, 전 국민에 기우제 기도(salat al-istisqa) 명령(2023.12). 농업에 투입되는 국가 수자원 기존 50억→ 12억 입방미터로 급감, 모든 댐 저수율 23%에 불과('24.2월초)
- (인도네시아) 2023년에는 엘니뇨에 따른 강수량 부족으로 커피, 팜유, 고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생산량 감소
- (남아공) 남아공 저소득층 가정에서 주식으로 사용하는 작물인 흰 옥수수 작황 영향: 극심한 더위 및 가뭄으로 흰 옥수수 수확량 2023/24 생산 전망치를 이전 대비 25% 감소한 690만 톤으로 전망(국가작황추정위원회, '24.4)
- * 인근 국가인 잠비아, 짐바브웨, 말라위 등에서도 가뭄 및 작황 부족 직면

스마트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지원

□ (품목) 스마트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지원

- (애그테크) 식량안보 중요성이 높아지며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팜, 농업 디지털화를 위한 주요국의 지원 정책 확대*, 관련 기회 증가 전망

애그테크 스마트팜	▲정밀농업(드론 등 무인항공기), 기후변화 예측, 토지매핑, 기후데이터 기반 예측 모델, 농업 관리 시스템, ▲스마트팜관리 시로봇, 농기계 GPS 탐색, 전자 필드 맵 및 무인 항공기, ▲컨테이너 스마트팜
수자원	수자원 인프라 관련 기술 협력, 현지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솔루션 제안 - 담수화 플랜트, 물 정화 시스템, 물 재활용 시설, 상수도 도관 관리 등 - 물 절약 장비, 디지털 수자원 관리 시스템, 댐건설, 해수 담수화 플랜트, 하수 재활용 및 고효율 정화 시스템, 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수자원 관리 시스템, 수자원 관리 자동화 솔루션 등
전력	발전기, 기자재, 발전소 등 프로젝트 수주, 칠러, ESS 등
물류·유통	콜드체인, 냉난방기 관련 제품, 물류 관련 도로항만 인프라 개선

- (우즈베키스탄) 수자원 감소(국내 최대 강 2개 유량이 10~20% 감소) 대응 긴급 대통령령을 발표('23)하고 농업인 등에 수자원 절약 장비 설치 보조금 및 저리 대출 제공, 쉐 농지에 디지털 수자원 관리 시스템 도입 예정(~'25.1)

- ◆ (카자흐스탄) 현재 스마트 농장 20개 이상, 신기술 선진농장 170여개 운영 중...2026년까지 디지털 농장 최소 291개, 선진 농장 900개 추가 조성 예정. 지난 10년간 카자흐스탄 온실하우스(스마트팜) 면적을 18배 이상 증가했으며, 관련해 온실하우스 필름 등 유망
* 카자흐스탄 정부는 “농공단지” 조성, 육계가공 농장, 식용기름 생산 농장, 곡물 가공 공장 등 운영
- ◆ (아제르바이잔) 농업 시활용 빅데이터 분석 기업, 관련 센서 및 분석 시스템 수출, 동 사의 기술은 현지 농업부에도 보고되어 현지 협력 파트너와 법인 설립, 현지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
- ◆ (사우디) 우리 식품 대기업, 중소기업 3곳과 컨소시엄으로(△온실운영, 작물재배 기술 이전, △스마트팜 관리 시로봇, △스마트팜 정보기술기업) 2025년 말까지 스마트팜 시설 운영 예정

□ (전략) 주요국 및 개발은행의 기후변화 대응 수요 활용

- 정부간 ODA 프로그램 혹은 국제기구 협력 프로젝트를 활용한 안정적 기반 마련
- (ODA) 정부는 지역별 상이한 특성과 수요를 고려, 차별화된 중점 분야를 선정
* (동남아) 고품질 가치사슬 개발 + K디지털농업 이니셔티브, (아프리카) 식량 생산성 증진 + K라이스벨트, (중동·CIS) 스마트 농업, (중남미) 소농의 소득 증진 (제47차 국제개발협력위)
- (국제기구)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등 기금 혹은 한국 분담금 활용
* 韓 ADB 중앙아 기후저속가능사업 준비기금(CSPFF)에 \$300만 출연('24.11), 인프라, 수자원 사업 지원

이슈 4 新제조업 투자처로 재부상한 신흥국 [공급망 협력]

- (이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각국의 제조업 강화를 위한 산업 육성책
 - 최근 3년간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며 일부 중진국들이 제조업 투자지로 부상
 - 국제결제은행(BIS)에서 25,000개 이상 기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들이 미-중간 무역의 중간 단계(connectors)로 추가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길어지고 있음(BIS, 2023)
 - * 미중간 경제가 분리되기보다는 멕시코, 베트남 등 새로운 장소에서 결합하고 있음을 의미
 - Bloomberg(2023)는 제조업 부문의 글로벌 수혜국으로 멕시코, 베트남, 폴란드, 인도네시아, 모로코 5개국을 선정 (5 key economic “connectors”)
 - 상기 5개국은 전세계 GDP의 4%를 차지하나, 지난 5년간(2017-22) 글로벌 그린필드 투자비중은 10%를 상회(5,500만 달러 상당을 유치)하였음.

<표5> 5대 국가의 최근 5년간 대미 수출 및 투자유치 동향 및 주요 글로벌 투자기업

국가	對美수출 (증감률)	對中수입 (증감률)	그린필드투자 (증감률)	주요 투자기업
베트남	\$1,275억 (174%)	\$1,476억 (104%)	\$249억 (21%)	· Foxconn(10억달러 상당 공장부지), GoerTek, Luxshare Precision Industry Co.와 Pegatron Corp. 등 애플 공급망 다수 투자 유치
폴란드	\$2,578억 (56%)	\$382억 (112%)	\$17.8 (11%)	· 글로벌 배터리 생산 2위 국가 · LG엔솔, Northvolt AB, SK이노베이션, Umicore SA-Volkswagen, Mercedes
멕시코	\$4,549억 (45%)	\$775억 (115%)	\$410억 (47%)	· 23년 미국의 1위 수입대상국으로 등극, 24년 GDI 역대 최고 기록 전망(전년 360억 달러 대비 8%↑) · Yinlun TDI LLC, Lingong Heavy Machinery Co. 등 중국기업 및 글로벌 기업 투자 증가
모로코	\$170억 (38%)	\$58억 (80%)	\$153억 (290%)	· 세계 최대 인산염 매장량 보유 · Renault, Stellantis, Lear Corp.와 Commercial Vehicle Group Inc. 등 투자 활발 · 中 Gotion High-Tech, CNGR Advanced Material Co., 韓 LM Chem- 中 Youyshan
인도 네시아	\$346억 (71%)	\$715억 (105%)	\$150억 (48%)	· 美 Ford - 中 화유 코발트 - 브라질 Vale사 합작, Stellantis도 Vale사 합작 니켈제련공장 추진 중 · Alpan Lighting 등 미국 기업들 중국서 이전

자료: [Bloomberg\(2023.11\)](#)

- **(아세안 투자 현황)** '23년 기준 ASEAN-6*로의 FDI는 2,060억 달러로, 10년 래 중국(430억 달러) 대비 높은 수준 기록 (Bain&Company, DBS, '24.8.1)
 - * 아세안-5(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 싱가포르
 - * 중국 FDI, '22년 1,890억 달러에서 '23년 430억 달러로 급감
- 인니·태국의 전기차 공급망 허브 부상, 베트남·말련·싱가포르의 반도체 생산 확대, 글로벌 빅테크 기업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등이 주 원인
 - * 對동남아 투자계획(억 달러) : (싱) 아마존 88, 구글 50, (말련) 마이크로소프트 22, 구글 20, (인니) 마이크로소프트 17, (태국) 아마존 7, 알리바바 1 등
- 동남아 국가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주요 투자처로 성장 전망
 - * 동남아에 연 투입되는 반도체팹 투자 규모는 '23년 36억→ '24년 64억 달러로 성장 전망(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도 장점
- **(인도)**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 지수에서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1위로 등극하며 글로벌 투자 지형의 근본적 변화(印 22.27% > 中 21.58%)
 - * 印 정부, 「Make in India」 고도화,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제도로 전기차, 모바일, 의료 기기, 이차전지, 반도체 등 14개 산업서 글로벌 기업의 자국내 투자 및 현지 생산을 독려
 - * PLI 수혜를 받은 “Made in India 스마트폰”은 인도 3채 수출 품목으로 등극
- **(카자흐스탄)** 지정학적 요인으로 카자흐스탄으로 글로벌 기업들 생산 거점 이전 확대
 - * 등록 해외 법인 수: ('21) 24,700→ ('23) 52,000개사 / CIS 공급망 변화: 러시아→ 카작+우즈벡

<표 6> 주요국의 글로벌 기업 투자 진출 동향

국가	글로벌 주요기업 투자 동향
말레이시아	· ▲Intel, 70억 달러 투입해 첨단 패키징 시설 준설 계획,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5.31일 투자 계획, ▲램리서치/마이크론은 장비 및 패키징 관련 시설 투자, ▲Micron Technology, 말레이시아에서 HBM(고대역 메모리) 제조 검토(Nikkei)
베트남	· ▲반도체 산업 국가전략 발표(' 23년): ' 30년까지 베트남에 첫 번째 fab 설립 목표
싱가포르	· 글로벌 파운드리, 싱가포르에 반도체 공장 오픈(23.9월)
태국	· ‘아세안의 디트로이트’ 로 불리는 아세안 최대 자동차 생산국 · 美 상무장관 방문('24.3) 시 “공급망 다각화를 모색하는 美 기업에 태국은 최우선 투자처”
인도	· 자동차 넘어 ‘세미콘시티’ 로 대개조...중국 대체제로 급부상중 ·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 공장 건설중, 印 타타 일렉트로닉스-TSMC 반도체 팹 공장, 印 CG파워가 日·태국 반도체 제조사와 협업한 총 1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패키징 공장도 조성
멕시코	·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신규 반도체 엔지니어링 센터 운영 돌입

자료: 발표내용 등 기반 자체 정리

소부장, 스마트제조, 건설기자재, K-그리드

- (품목) 제조업 육성책에 따라 △글로벌 및 현지 기업 대상 중간재 납품 기회 증가, △스마트 제조, △전력 및 관련 인프라 수요

소부장	· 제조업 설비 증가에 따른 관련 장비, 부품 납품 기회 증가 · 현지 생산 경쟁력을 가진 중고 유희설비 이전(정부 프로그램)
스마트제조	·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민간의 자동화 수요 급증, 스마트 산업단지
R&D	· 기술 협력 및 인력 양성
전력	· 발전기, 기자재, 발전소 등 프로젝트 수주, 칠러, ESS, K그리드 등
인프라	· 도로, 항만, 관련 건설 기자재 및 중장비 등

- (전략) 현지 합작, 기술협력, R&D 협업 및 인력 개발 지원

- (제조업 육성책 활용) 현지 제조업 육성책에 따른 글로벌 기업 진출 수요 활용

- ◆ (인도) 플라즈마 세정기 판매 A사, 인도 정부의 반도체 육성정책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움직임을 활용, 인도 내 기업에 납품 성공
- ◆ (가나) 의료기기 생산업체 A사는 제조업 육성정책인 1지구 1공장(1 District 1 Factory)정책과 연계하여 현지에 조립공장을 설립, 초기에는 SKD형태로 부품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시작함. 향후 서아프리카 일대로 수출 계획을 현지 통상산업부에 제시, 1D1F 자격을 획득해 판로 확대
- ◆ (아프리카) 글로벌 소비자재 대기업 B사, 케냐와 남아공을 생산거점으로 활용, 교통 및 물류 인프라와 AfCFTA를 활용해 주변국으로의 무역이 용이
- ◆ (카자흐스탄) 차량용 시스템 생산 기업, 현지 생산을 위해 우리 완성차 조립 생산업체인 현지 업체와 합작 법인 설립, 2024년부터 생산 진행 중

- (인력교육 및 R&D 기술 이전) 기술이전을 통한 현지 생산능력 향상

- (인력 교육) 기업 자체 교육 시스템 도입, 정부의 현지 산학연 시스템 지원 등
- (장비 이전) 현지 생산 경쟁력을 가진 중고 유희설비를 정부 프로그램 등으로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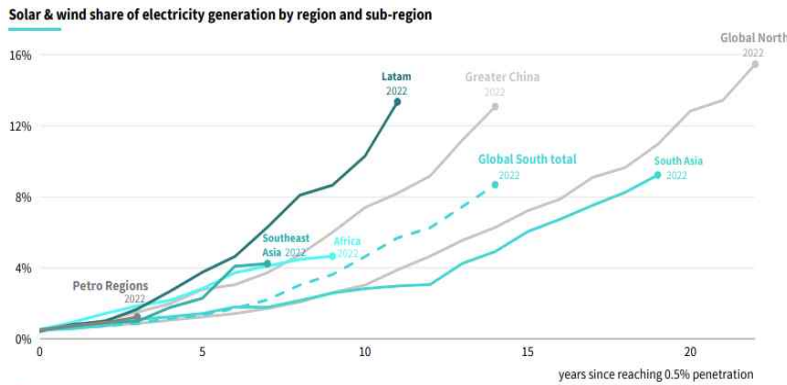
- ◆ (남아공) 우리기업 A사, 1990년대 현지 조립공장을 지으며 아프리카 진출, 2019년 에티오피아에 생산 거점 구축하고 상용차 생산 → 가나, 나이지리아에도 공장 운영, 기술 이전

이슈 5 핵심자원 · 에너지 부국과의 기술협력 [공급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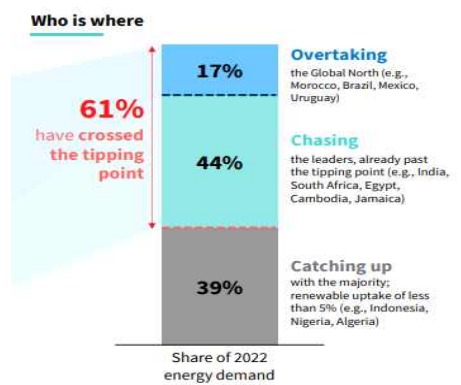
□ (에너지) 청정에너지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사우스 지역

- (청정에너지 성장세) 많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서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증가. 실제로 지난 5년간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 태양광·풍력 발전은 연평균 23% 성장(RMI, 2024)
 - 동 지역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의 70% 차지. '24년에는 전력 생산을 위한 자본 지출의 87%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 이는 5년 전(50%)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
 - 한편, 글로벌 사우스의 61%는 티핑 포인트(전체 5%)에 도달했으며 이 중 17%는 (모로코, 브라질, 멕시코, 우루과이 등) 글로벌 노스의 비중을 상회(RMI, 2024)
 - * 특히 중남미는(약 11년) 중국(약 14년)보다 빠른 속도로 유사한 수준에 도달
 - * 인도, 남아공, 이집트, 캄보디아, 자메이카 등 국가들도 티핑 포인트(0.5%)에 도달

<그림 9> 지역별 태양광 · 풍력 발전 속도



<그림 10> 선진국 대비 발전비중



자료: RMI(2024), "Powering Up the Global South" (2024.10)

- (기후변화 영향)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기존 수력발전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남미 지역들은 기후변화 직격타를 맞으며 에너지믹스 전환 불가피
 - * (콜롬비아) 정부, 재생에너지 기반 모델로 전환 추진중('30년까지 온실가스 51% 감축)
 - * (칠레) 신재생에너지 확대(現 60%→'30년 80%) 목표, 2023-30 그린수소 액션플랜 발표('24.4)
 - * (파나마) 국가에너지처, '50년까지 전체 발전설비 30%를 태양광, 풍력 위주로 대체 목표
- 주요국은 재생에너지 설립을 위한 국가 정책을 발표한 바, 관련 수요 증가 전망
 - * (베트남) 8차 국가전력개발계획 일환으로 남북부 2곳의 재생에너지 중심지 설립 계획('24.4)

- * (인도) 전력수요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30년까지 전력 수요 50% 신재생
충당 계획(태양광, 그린수소 등)... 최근 5년간 프로젝트 시장 투자 1위는 에너지(24%)
- (전통 에너지) 한편,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아세안 등 일부 지역
에서는 다시 화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양상을 보임, LNG, 청정석탄 등 위주
- * 아세안 지역에서는 화석연료가 '23년 새롭게 추가된 전력 발전량의 73%를 차지했으며,
청정 석탄, 탄소포집·저장 등 대체기술 개발을 추진
- (GCC-중앙아 협력) 중앙아시아 내 중동 기업 진출 확대: 카자흐스탄-카타
르, 176억 달러 상당 주요 에너지 투자 프로젝트 추진 합의 (5.4)
- * 카자흐스탄 내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구축, 가스 정제공장과 2개의 수력/화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카타르의 투자 등 합의

□ (광물)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글로벌 전쟁과 자원부국의 자원민족주의 지속

- (핵심자원 매장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사용되는 핵심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
했으며,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은 친환경 핵심 자원의 주요 매장국
- * (태양광·풍력 발전 핵심자원) 알루미늄, 구리, 강철, 망간, 납, 철, 크롬 등
- (주요국 정책) 자원부국은 자원 개발 육성책 및 관련 인프라 확충 노력
- (카자흐스탄) 동부 지역 리튬 광산 생산 시작 예정(6.13)
- (인도네시아) 프리포트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에 37억 달러 규모 구리 제련소
완공하고 공식 운영 시작('24.7)...세계 최대 단일 라인 구리 제련소가 될 예정
- (몽골) 세계 10대 자원부국 몽골, '광물 거래 시스템' 구축
- (자원통제 추세) '24년에도 주요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간 쟁탈전이
지속·심화되는 가운데, 자원부국은 전략자원의 수출을 통제하고 자국내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추구하는 양상
- 과거에는 원유, 가스, 희토류 등 일부 자원에 국한됐던 자원 민족주의가 니켈,
코발트, 흑연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광물 전반으로 확대되며, 자원 부국은
광물 수출의 전략적 통제를 통해 국제 정치에서 영향력 강화 움직임
- * (인도네시아) 니켈 등 원광 수출 금지, 자국내 정제련 시설 설립 필수
- * (멕시코) 리튬 국유화 법안 정식 선포, 칠레 대통령 리튬 국유화 선언 등

에너지, 기술협력, 광물 개발 및 물류

□ (품목) 친환경 에너지, 전력 안정화, ESS, 광물 개발 및 에너지 수송 등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설비(태양광, 풍력, 그린수소 등), LNG전환 기술,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발전용 인버터, 대규모 배터리 저장 시스템, 전력 관리 소프트웨어, 스마트 미터, 전력 안정화 장치 등 ESS, 스마트 그리드 사업 등
기술협력	R&D 협력(친환경 제련, LNG 전환기술 등), 제조업 연계를 위한 고부가가치화
수자원	물 절약장비, 디지털 수자원 관리 시스템, 댐건설, 하수 재처리, 해수 담수화
광물개발	광물개발 및 제련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억제 및 재활용 기술 공동연구
물류	수소 운반선, LNG 운반선, 광물 철도 등

□ (전략) 기술협력, R&D 협업 및 인력 개발 지원, 물류 및 디지털 전환 인프라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지원, ODA 등 활용

- (수요 맞춤형) 기존의 인프라 개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연결, 안정적 재원 확충 등 글로벌 사우스 정부·기업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수요 위주 접근
- (현지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지분 인수를 통한 물량 확보나, 현지 생산·제련 기반 설립을 통한 전략적 제휴 추진 가능

◆ (현지화) B사, 경쟁국 대비 불리한 조건 극복을 위해 남아공 현지화 전략: △현지직원 교육 등으로 남아공 정부의 자국기업 육성책과 부합, 입찰서 고득점,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 적극 추진하며 현지에서 긍정적 기업 이미지 구축 → 발전소 사업 연속 수주(장기사업 수주)

-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현지에서 개발된 자원을 활용, 기술 이전·협력을 통한 연관 산업 육성 등 현지 공급망 구축을 통한 생산 능력 제고
 - (에너지) 원유, 천연가스 등 주요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사업 기회 창출
 - * 우리 기업은 모잠비크에서 “바다 위 LNG공장”인 FLNG(’17년), 육상 액화플랜트(’20년), LNG 수송선, 천연가스 프로젝트(’20) 등에 참여
 - (순환 구조) 주요국 정부는 전력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생 에너지, 원자력 발전, 스마트 그리드 등 기술 도입 기대, 특히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단지 조성 → 그린수소 생산 → 해외로 수출 등의 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함.

- (전후방 산업 연계) 광물 개발-에너지 생산-제조업으로 연계 등 공급망 구축
 - * △모잠비크 천연가스를 활용한 친환경 교통인프라 구축, 에너지·석유화학 제조업 프로젝트 참여, △남아공은 백금(수소에너지 생산에 필요) 매장량 세계 1위로, 자원개발 협력→ 수소 에너지 생산·유통 등 인프라에 공동 투자 가능

- ◆ (수소) 현대자동차, 인도에 공과대학(IITM), 교육청 공동으로 수소혁신센터 구축, 그린수소 생산 기술 개발, '26년 운영 시작 예정...인도 정부의 '국가 그린수소 미션' 와 수요 일치
- ◆ (발전소 연료 전환) 두산에너지빌리티, 칠레 화력 발전소 연료 전환사업 수주(2024.5): 칠레의 375MW급 화력 발전소 발전 연료 전환(석탄→ 천연가스) 프로젝트
 - * 발전소 연료 전환은 신규 건설대비 발전소 운영 정지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기존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저탄소 발전 솔루션으로 간주되고 있음.

○ (자원 물류 시장) 자원 물류 시장 진입을 통해 에너지 생산성 향상 지원

- ◆ (물류) LX판토스, 세계 1위 니켈 생산지 인도네시아 자원 물류시장 진출 계약 체결('24.5): 현지 최대 자원 운송 전문 벌크선사와 JV설립 운영. 광산에서 생산되는 석탄 생산 추진 예정

○ (광물) 친환경 광물 추출 기술, 디지털 광산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수요 多

- ◆ (칠레) 韓 산업부-칠레 광업부와 '제5차 한-칠레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논의(2024.5)
 - * 칠레 리튬 매장량은(930만 톤) 세계 1위로, 칠레의 광미(광물 찌꺼기)에서 핵심 광물을 추출하는 재자원화 기술 개발 협력 및 한국의 친환경 리튬 추출 기술을 적용한 협력 등 한국기업의 칠레 진출 방안도 논의함
- ◆ (중앙아) 정부 중앙아 순방 계기 카자흐·우즈베스탄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체결(2024.6), 몽골과 희소금속센터 설립
 - (우즈벡) 광물 공급망 구축 및 첨단산업 협력: 몰리브덴, 텅스텐 등 핵심광물 공급망 고도화
 - * 「지역난방 현대화」 약정: 에너지 인프라 효율화 기여, 韓 지역난방 기업들의 시장 진출 기회
 - (몽골) 한국-몽골과 희소금속 협력 강화(광물분야 양자·다자 협력, R&D 협력 등)

III

결론

1 협력 국가 및 협력 분야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 국가 및 협력 분야 선정을 위한 기업·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 KOTRA가 ①학계 및 산업분야 다수 전문가, ②우리 유관기업(80개사) 및 ③ 6개 지역 본부 (동남아, 서남아, 중남미, CIS, 중동, 아프리카) 소재 65개 해외 무역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행

○ (국가) 높은 시장성 및 우리기업 기 진출 국가 위주로 수요 지속 증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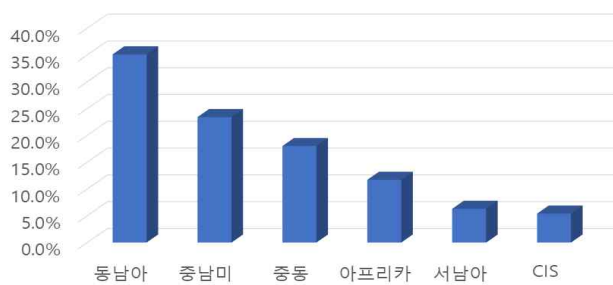
- (권역별) 자동차, 전자, 에너지, 건설,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의 해외 사업을 수행 중인 관련 기업 8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은 동남아(35.1%), 중남미(23.4%), 중동(18%), 아프리카(11.7%) 지역으로 기 진출
- (국가별) 응답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수행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추가 진출 검토 지역에서는 인도가 더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 특히 제조업 관련 기업의 경우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성, 내수시장 등을 주요 고려 사항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등 주요국을 위주로 진출함. 추가 진출 검토 지역으로 내수시장 성장률이 높은 인도를 꼽은 응답 비중 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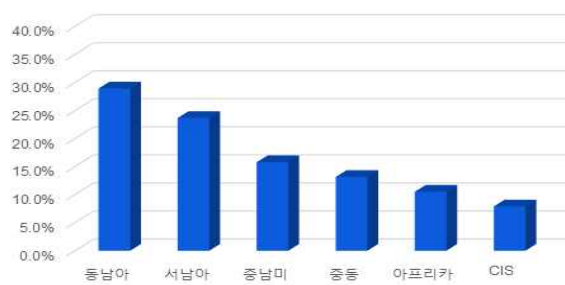
* 소비재의 경우 한류우호국 등 더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비중 多

- (수요별) 시장 측면에서는 신흥지역 중 판매 주력 시장(인구 대국의 내수시장 활용)이자 인근 시장 진출 교두보 활용, 제조업 측면에서 자사 공장 혹은 납품처 공장 이전(수요기업 기 진출)에 따른 중국 대체 공장으로 언급

<그림 11> 글로벌 사우스 지역 중 기 진출 지역



<그림 12> 추가 진출을 검토 중인 지역



자료: 기업대상 설문조사 결과(2024), 국가로 답변한 경우 권역으로 포함하여 집계하였음.

○ (애로사항) 주요국의 자국 보호주의 및 정책 불확실성 확대 및 최근 확대되고 있는 중국 기업의 영향력에 따른 대응책 마련 필요

- (정책 이슈) 최근 글로벌 사우스 국가 정부들이 자국 보호주의로 선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 불확실성이 증대, 현지 생산 및 투자 환경 영향

* 자국산 부품 사용을 규제함에 따라 진출 시 고려사항이 가중되었을 뿐 아니라, 올해는 메가 선거의 해로서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노선 변경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도 가중

- (경쟁 심화) 특히 기존 경쟁국(일본 등)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진출 강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우호적 정책 환경 조성에 애로 심화

☞ (자동차/부품) 전기차를 중심으로 BYD 등 중국 업체들이 가격 뿐만 아니라 기술경쟁력 차원에서도 진일보함에 따라 해당국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음. 아세안 진출에 적극적이며, 남미 시장으로도 확장 중인 상황

* 미국, 유럽 등은 무역장벽을 통해 중국을 직간접적으로 견제하고 있으며, 인도도 중국 업체 투자 불화, 관세 부과 등의 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나, 글로벌 사우스 개발도상국의 경우 현재 타 시장 대비 중국에 우호적 시장 환경이 조성

· “BYD 등 전기차 업체를 중심으로 아세안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어 향후 경쟁 심화가 우려. 최근 남미 등으로도 세력을 확장하는 양상으로 예의주시 필요” (A사)

· “우리 완성차 기업의 협력업체로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함. 현지에는 Toyota가 부품 협력사를 포함한 공단지역을 조성하며, 안정적인 생산체계와 AS를 바탕으로 차량 판매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어 주요 경쟁국” (B사)

☞ (인프라) 중국, 일본 등과 경쟁 심화 및 현지 기업 우대정책 (해외건설협회)

-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들은 대부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상당수의 사업을 투자개발형 사업 등 금융이 동반되는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음.

- 한편, 중국, 일본은 대규모 차관 등 금융을 토대로 인프라 계약을 하는 전략을 지속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

- 그 외에도 최근 말레이시아 ‘부미푸트라’ 등 현지 기업의 우대하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어, 현지 기업과의 경쟁 상황도 심화되고 있음

- “최근 중동, 인니, 필리핀 등에서 수요가 높은 편, 현지에서 일본은 JICA 무상원조를 기반으로 중국은 저렴한 가격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함” (물관련 C사)
- “많은 사업을 모 국가 시공사가 저가로 수주를 하고, 시공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이슈가 발생해 감리단계에서 어려움. 계획한 일정대로의 공정추진에 이슈” (D사)

- (소비재) 중국기업 저가 경쟁, 현지 위조품 대응 및 현지 시장 인증 취득 등
 - * 일부 시장에서 위조품 및 중국·현지 기업의 저가 경쟁이 심화되며(단기 출혈 경쟁), 중소기업의 자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
 - * (인증) 일부 기업은 현지 인증 취득을 위한 비용 및 절차상 애로(의료기기, 식품 등)

④ (대정부 요청사항) ODA 등 정부간 협력 프로젝트로 안정적 진출 기반 마련

-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외교관계 강화, ODA 등 협력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장기적 과제(한국 경제개발 사례 공유, CSR, 패키지 진출전략 등)를 선결하여 우호적 정책, 시장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 필요
- 인도, 아프리카 등 중앙·지방정부가 공공 인프라 투자에 소극적인 국가 대상으로 ODA 차원의 인프라 협력 확대 필요 (ex. 수출항과의 연결 도로/철도, 공업용 생산단지, 용수시설, 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 등) (제조업 E사)

- “우리 기업은 기회 확보,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가 불가피한 상황: 최근 중국의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美, 유럽 등 주요국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이 있음. 따라서 일종의 공백기에 선제적으로 협력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 필요” (제조업 F사)
- “중국 정부는 기존에는 국책은행과 차관을 활용하여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양적 확대에 주력해왔다면, 최근에는 중국 경제 악화, 그간 투자 성과에 대한 반성 등을 반영해 질적 심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제조업 G사)
- 우리 기업들의 초기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KOICA, EDCF 사업 등을 활용해 레퍼런스를 축적하는 방안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우리 정부의 중미개발은행(CABEI) 출자 역시 인프라 진출 기회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인프라 H사)

2 결론: 주요 이슈별 지역별 협력 전략

- (수요 반영) 기후변화, 식량위기, 디지털 전환,
 - (국제사회 의제) 인도네시아('22), 인도('23), 브라질('24), 남아공('25) 등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이 의장국으로 주요 의제를 선도한 G20와 최근의 국제기구 협력 현안은 주로 기후변화, 식량위기, 디지털 전환,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등
 - (국별 이슈) KOTRA의 글로벌 사우스 지역 소재 65개 무역관(50개국)에서 선정한 「2024-25 주요 이슈」 200여 건을 테마별로 분류한 결과, 국가별 주요 이슈로 ① 정권 교체 및 신정부의 경기 부양책, ②인프라 및 에너지, ③미국 대선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④자국생산 강화 정책, ⑤탄소중립과 디지털 등이 언급됨.

	동남아(10)	서남아(9)	중남미(12)	CIS(10)	중동(15)	아프리카(9)
新정부/ 경기부양책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인도, 파키스탄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 과테말라 도(공), 에콰도르, 파나마	몽골,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모로코,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	가나, 남아공, 모잠비크, 케냐,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인프라/ 에너지	인도네시아(신수도 이전), 캄보디아, 필리핀(BBM), 방글라데시	인도	브라질, 에콰도르, 도(공), 쿠바, 파나마, 페루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모로코(수처리),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남아공, 모잠비크, 탄자니아
탄소중립	방글라데시, 라오스, 베트남, 싱가포르		콜롬비아		오만,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르키예	
글로벌 협력 /FTA 확대			에콰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몽골,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이란(BRICS), 튀르키예	케냐, 코트디부아르
미국대선/ 공급망 재편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과테말라, 도(공), 멕시코, 브라질, 칠레, 쿠바, 페루	아제르바이잔(물류)		
자국생산/ 보호주의 강화	태국(전기차 허브화), 방글라데시	인도(Make in India 고도화), 파키스탄(Make in Pakistan)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오만 (Omanization)	
공급망 (광물, 농업)			아르헨티나, 칠레, 파나마	카자흐스탄	카타르(스마트 농업)	모잠비크, 탄자니아
디지털 전환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남아공, 모잠비크
한류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인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칠레, 콜롬비아	아제르바이잔		남아공

자료: 각 글로벌사우스 지역 소재 50개 무역관에서 선정한 2025년 주요 이슈 200건을 주요 테마 별로 분류하였음

□ 주요 이슈별 지역별 협력전략

○ (기본 전략) 시장의 관점과 생산 거점으로서의 공급망 관점으로 접근

- 현지 정부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충족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 구축 가능

☞ 글로벌 이슈 + 해당국의 수요 + 국제사회 의제 + 우리기업/무역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주요 이슈별 유망 품목과 협력 전략은 하기와 같음.

분류	이슈	전략	유망 품목	유망 국가
시장	① 소비시장 (소비재, 의료)	- 한류 콘텐츠 활용 * 문화→韓 제품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확대 中 - K컬처 활용 프리미엄 소비재 시장 공략	소비재, 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 인도, 인니,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 브라질, 멕시코 - 이집트, 남아공
	② SOC 기반 구축	- 스마트시티 등 우리 경쟁우위분야 집중 * 기 진출경험 활용 - 정부간(ODA 등) 프로그램 활용, 민관협력, 국제기구 협력	건설·교통·물류, 스마트시티, 디지털, 그린네트워크 건설기자재, K-그리드	-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 브라질, 페루 - 사우디, UAE, 오만, 요르단 - 남아공, 케냐, 탄자니아
	③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 스마트팜 등 농업 인프라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성 지원 - ODA 사업 연계 - 우리 식량 자원 확보	스마트팜, 재해경보, 담수화, K-라이스벨트, 농업 기술 R&D, 콜드체인, 농기계	- 인도, 인니, 베트남, 태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 이집트, 사우디, UAE - 남아공, 에티오피아
생산 거점 (공급망)	④ 제조업	- 현지 정부의 수요 반영 * 전략산업 제조업 육성책 - 현지 내수시장 개척 지원 - 현지 수출역량 강화 지원 * EU 등 글로벌 규제 대응	소부장, 스마트제조, 건설기자재, K-그리드	- 인니, 인도, 베트남, 말련, 우즈베크 - 멕시코, 브라질 - 튀르키예, 사우디, UAE - 남아공, 케냐
	⑤ 에너지, 핵심광물	- 기술협력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전략 - 안정적 에너지 협력 기반 마련	핵심광물·소재, 정·제련, 물류, 연관 기자재·부품	- 인니, 필리핀, 몽골, 카자흐 -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 UAE, 사우디, 카타르, 오만 - 남아공, DR콩고, 가봉 등

* 한국 정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중앙아시아 기후지속가능사업준비기금(CSPPF)에 '26년까지 300만달러 출연 협정 체결(11.10)... 인프라, 에너지, 수자원 사업 준비 지원

- 민간부문 투자 및 협력업체 진출 제고를 위한 긴밀한 민관협력의 중요성

· “양적 팽창뿐 아니라, 정교하고 장기적 관점의 질적 팽창을 해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제조업 대기업 E사)

- **(국가)** 글로벌 사우스 120여개국은 그 범위가 다소 넓고, 시장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우선 협력국 중심 진출 후 주변국으로 확대하는 차별화 전략 수립 적절
- **(우선 협력국)** ▲시장성(시장규모, 가처분소득, 성장률 등), ▲과급력(주변 국가로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BRICS, G20 의장국**(인니,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을 중심으로 진출 후→ 이를 거점으로 삼아 진출하는 방안 바람직
- (주력→ 기회시장으로 영향력 확대) 중점 협력국 대비 시장규모 등은 상대적으로 작으나, 성장률이 높고 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 위주로 진출

○ **(협력방안)** △(시장) 현지화, 현지 맞춤형 제품, △(생산) 기술교육 등

시장 관점 협력국 수요 맞춤형 제품·서비스 지원으로 안정적 진출기반 확보

- **(소비시장)** K푸드, K뷰티 등 기존 품목 중심으로 진출 후 품목 다변화,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 및 소비재 시장 진출 온라인몰 등 현지 유통망 협업을 통한 인지도 제고 노력
- **(SOC기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현지 국가의 자금력이 부족해 해외 정부 혹은 국제기구와 협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ODA 등 국가 협력 프로젝트 등을 기반으로 마련 후 안정적 진출기반 마련 가능(건설, 에너지 등)
- **(식량 안보)** 관련 인프라 및 시스템, 기술 전수 등 통합적인 솔루션 지원

생산 거점(공급망) 혁신 협력 파트너 : 생산성 향상 지원으로 안정적 생산 거점 마련

- **(제조업)** 현지 생산시설 확대를 기술협력, 현지 제도 구축 지원 등

· “현지 제조업 공장 설립 후에도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이 애로사항 중 하나임. 기술 교육 등을 통해 현지의 역량을 강화하면 상호 호혜적일 것” (제조업 대기업 E사)

- **(광물)** 친환경 채굴, 물류확보, 제조업 연계 등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작 성

- 구미CIS팀 박민경

글로벌 사우스 주요 이슈와 협력 전략

Global Market Report 24-047

발행일	2024년 11월
발행인	유정열
발행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13
전화	1600-7119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의처	02-3460-7677

• ISBN: 979-11-402-1048-0 (95320)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